



和仁 엔지니어링

건축물의 설계도 작성에 컴퓨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당사에서는 1987년 6월에 삼보 트라이젼 386 기종으로 CAD를 도입한 이래 건축물의 조명설비와 소방시설의 도면 작성에 컴퓨터를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나 CAD 이용 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설계 도면 작성을 위한 CAD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컴퓨터 전문 인력의 확보라 생각되는데 실무적인 업무에 CAD를 신속히 이용할 수 없는 주된 이유가 이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컴퓨터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득이 사내에서 CAD 전담인원을 선발하여 부단히 교육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바 전담요원을 둔다하더라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당사의 경우 여기에 필요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나 소비된 셈이었다.

범용 컴퓨터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전문 요원의 육성에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인데 특히 CAD를 활용한 설계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꾸준히 애쓴 보람이 있어 89년 10월에는 삼보 286기종 4대를 추가 도입하여 CAD 이

용을 활성화 시켰으며 전체 설계도면 작성의 절반 정도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CAD 활용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 설계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설계 인력의 부족 때문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건물 설계인력의 부족 현상은 전체 설계용역업계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인력 부족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인원의 부족과 함께 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이 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에서는 1990. 6. 1 CAD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기존의 전산실을 확대 개편하여 CAD실을 발족시켜 전담 요원 6명으로 하여금 이 업무에 전념하게 하고 있다.

현재 당사의 CAD실에는 삼보트라이젼 386 기종1대, 삼보 286 4대를 구비하여 설계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곧 닥쳐올 CAD를 활용한 3차원 (Three-Cemension) plot에 대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理禾産業株式會社

이화산업 (주)는 195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합성 염료 제조회사이다. 서울 영등포에 본사를 두고 인천에 공장이 있는 회사로 염료 및 그 중간체를 합성하여 국내에 공급함은 물론 해외에도 연간 약 3천만불의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종합 염료 및 중간체 제조 업체이다.

이화산업 (주)인천공장은 약 2만평의 대지에 4백여명의 종업원이 반응성염료, 직접염료, 산성염료, 염기성염료, 형광염료, 유화염료등과 그 중간체를 생산하며 그 능력은 연간 약 일만일천여톤에 달한다. 수십년간 다져진 합성기술을 바탕으로 이란에 제조기술을 수출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년전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